

자유학기제 정책에 따른 A중학교 학교변화 사례 분석

이인회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An Analysis of School Change of A Middle School according to the Free Semester Policy

In-Hoi Lee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 정책에 따른 학교변화의 사례를 분석하여 2016년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A중학교의 학교변화 사례를 질적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를 통해 전반적인 학교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 구조적 측면과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제 운영의 초점을 교수-학습 개선 또는 진로체험 중 어디에 둘 것인지를 선택하여 실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자유학기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기대와 신뢰를 향상시키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업시수 조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평가부담 해소 및 교사의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 자유학기제, 학교변화, 변화요인, 진로체험, 사례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 case of school change according to the free semester policy and provide its suggestions for the entir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n 2016. For the study, a middle school case was examined qualitative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al change and psychological change should be simultaneously implemented in order to bring out overall school change. Second, the free semester should be focused on either teaching and learning improvement or career experience by having concrete action plans. Third, school stakeholders' trust and expectation should be improved by the consistency and continuity of the policy, and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should reduce teachers work load as well as unnecessary works from the other areas besides teaching.

Key Words : Free Semester System, School Change, Change Factor, Career Experience, Case Study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한 연구자가 작성한 '2014년도 2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최상덕 외, 2015)'의 일부 내용을 논문으로 재구성하였음.

Received 9 November 2015, Revised 19 December 2015
Accepted 20 Jan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In-Hoi Lee(Jeju National University)
Email: tomlee@jejun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며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지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자, 학교변화의 실천 방안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 정책이 도입된 주요 배경으로는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교육 흐름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1,2].

자유학기제 정책은 2013년 5월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이 발표되면서 구체화 되었다[3]. 2013년 2학기부터 42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시범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2014년에는 38개의 연구학교와 732개교의 희망학교에서, 그리고 2015년에는 2,471개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4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2014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80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4], 지역별 편차 없이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운영 및 평가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인식 정도가 비운영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 전반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학교현장에 기존의 상태나 제도, 교육활동을 변화시키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5]. 따라서 이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교변화의 측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과 같은 외적 요인이 어떻게 학교변화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수준의 다양한 내적 요인들이 실제로 학교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학술적인 측면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유학기제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최상덕 외, 2013; 박근열, 2014; 이덕란, 2014; 김이경, 민수빈, 2015), 자유학기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진로교육 등 특정 주제에 대

한 운영 방안 연구(김미진 외, 2014; 장현진 외, 2014; 이병환 외, 2015),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연구(홍후조 외, 2013; 김진섭, 2015) 및 해외 사례 연구(김나라 외, 2013; 김진숙, 2013)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수준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사례 연구를 질적연구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는 2편[5,6]에 불과하며, 이들 연구도 학교변화의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책에 따른 A중학교의 학교변화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변화의 개념과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 분석틀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 학교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2016년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운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유학기제의 취지 및 운영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교육정책이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이 중간 및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과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3].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5.9.28)에 의하면, 중학교의 장은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야 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제48조의2).

최상덕 외(2015)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정책 초기에 진로체험에 큰 비중을 두었지만, 현재는 교수-학습 개선과 교육과정 혁신 그리고 이를 통한 교육 전반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5].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찬성과 반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2015)은 자유학기제 교육활동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4]. 첫째,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제공한다. 둘째,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기초로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 한다. 셋째, 지필식 총괄평가를 폐지하고 교과별로 핵심성취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한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진로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자유학기제의 운영 모형은 크게 진로탐색 중점 모형,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예술·체육 중점 모형,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의 4종류이다. 단위학교는 자유학기 동안, 오전에는 학생의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공통과정’의 기본 교과를 운영하지만, 오후에는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기초한 ‘자율과정’을 자유롭게 편성, 운영할 수 있다.

2.2 학교변화

학교변화는 ‘교육개혁’, ‘교육혁신’, ‘학교혁신’ 등과 관련하여 다소 혼동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용어는 약간의 관점 차이는 있으나 기존의 상태나 제도, 활동들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나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서용희와 주철안(2007)은 교육개혁, 교육혁신, 학교혁신을 구분하고 있는데, 교육개혁은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제도 측면에서의 교육 변화를 가리키고, 교육혁신은 효과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체제 전체의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교육의 변화를 의미하고, 학교혁신은 교육혁신 중에서 시행 범위가 단위학교에 한정되었을 때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7]. 진동섭 외(2014)는 ‘변화’를 ‘개혁’과 ‘혁신’ 등을 아우르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이해하면서,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도적, 비의도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학교변화를 규정하고 있다[8].

그러면 학교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학교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보는 학자들(황체석, 2000; 곽수란, 2009)이 있다. 이기명과 천세영(2011)은 학교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현재 교육개혁 정책의 목적이 학업성취도 향상이며, 학교변화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9]. 그러나 박상완(2009)의 지적처럼 이러한 인지적 차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변화도 학교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1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학교변화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존의 학교가 학교 구성원 간 혹은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의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교의 여건이나 교육활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3 학교변화의 촉진요인

그동안 학교변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학교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인적요인(교장, 교사, 학부모), 제도·정책적 요인(교원인사제도, 연구학교 운영, 학교평가), 물적·재정적 요인(학교규모, 학교시설, 설비, 교원근무환경), 사회·환경적 요인(학교풍토, 지역사회, 시민단체)으로 정리된다[11]. 그러나 최근 들어, 진동섭 외(2014)는 학교변화의 새로운 요인으로 학교 외관을 예술적으로 변화시킨 외부기업의 우연적 개입을 포함하기도 하였다[8]. Hargreaves와 Shirley(2009)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학교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촉진요인으로서 ‘성취를 위한 투자(Achievement through investment)’와 ‘변화의 파트너로서의 학생(Students as partners in change)’을 추가하고 있다[12].

박상완(2009)에 따르면, 학교변화란 학교교육의 성과(성취도, 만족도 등) 제고를 궁극적인 요소로 하면서, 학교구조와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측면, 학교의 핵심가치·문화, 실제(실천)의 변화를 포괄하는 것이다[10]. 여기서 학교의 구조적 변화와 구성원의 심리적 변화는 상보적인 것으로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후자가 학교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는 학교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수용 정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변화의 촉진요인 중에서 교사들의 동료성, 학교장의 지도성, 학부모의 협조와 같은 인적요인이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13,14,15]. 그러나 한대동 외(2012)는 인적요인의 공동체적 관계 형성이 실제 교육활동의 중심이 되는 수업과 이를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의 활동으로 실천될 때, 구체적인 학교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16].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책에 따른 학교변화가 단위학교 수준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두고, 학교의 내부 변화인 학교 구조적 측면, 학교 구

성원의 심리적 측면, 그리고 교수-학습의 실제적 측면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학교

A중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3학년도부터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하여 2년차 시범운영하고 있는 여자중학교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014년 12월 A중학교를 방문하여 자유학기제 동아리 수업을 참관하고, ‘자유학기제 현장 간담회’를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17]. 이 학교는 자유학기제 연구시범학교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교과교실제 연구학교(2010~2012), 교원능력개발 선도학교(2009) 등 다양한 정책연구에 적극 참여해 왔다.

A중학교는 ○○○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 환경을 가지고 있고 학부모의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많으나, 관광도시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환경의 저해요소도 상존하는 편이다. 이 학교는 1980년 15학급으로 인가받아 설립되었고, 2015년 현재 3개 학년 17학급에 55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36명의 교사와 14명의 직원 등 총 50명의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A중학교는 1학년 5학급 16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 탐색+예술·체육 중점모형’을 따르고 있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으로 공통과정은 주당 21시간, 그리고 자율과정은 예술·체육(주당 5시간), 진로 탐색(주당 3시간), 동아리활동(주당 2시간), 선택프로그램(주당 2시간)의 12시간을 편성·운영하고 있다[18].

3.2 연구 방법

이 논문의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면담 및 학교 방문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학교장과 자유학기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4명, 학생 6명(자유학기제를 경험한 2학년과 경험중인 1학년 각 3명씩) 및 학부모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은 2014년 11월 20일~11월 27일 사이에 방문 면담 및 퇴근 후 면담의 2가지 방법으로 3차례 이루어졌으며, 면담지는 반구조화된 면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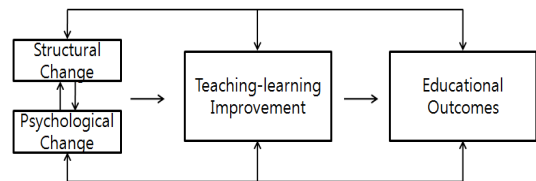
법으로 작성되었다. 면담 대상자의 주요 인적사항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Interviewee's Information

Division	Name	Sex	Career/Grade	Other
Teacher	Kim	M	35yr	Principal
	Park	F	30yr	Research manager
	Lee	F	27yr	Career manager
	Han	F	18yr	1st yr class manager
	Kim	F	29yr	2nd yr class manager
Student	Han	F	1st yr class	-
	Lee	F		
	Yang	F		
	Seong	F	2nd yr class	-
	Lee	F		
	Kim	F		
Parent	Hyen	F	-	Parent leader (1st yr class)
	Oh	F	-	Parent leader (2nd yr class)
	Im	F	-	1st yr class parent
	Lee	F	-	1st yr class parent
	Jang	F	-	2nd yr class parent

3.3 분석틀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교변화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박상완(2009: 181)이 활용한 분석틀[10]을 적용하여 아래의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Framework

4. 연구 결과

4.1 학교 운영 구조

A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계획, 실행, 평가하기 위한 운영조직을 편성하기 위해 일부 학교 조직을 신설하거나 재조정하였고, 연구부장을 핵심으로 한 실무조직을 구성하였다.

우리 학교는 예술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문화예술부장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예술관련 교육활동에 대한 것을 기획하고 자유학기제 활동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진로상담부장이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과 진로체험, 진로캠프 분야를 맡아서 해주겠다고 하여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은 교무부장이 맡아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은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한 전담조직에서 담당합니다. (교장)

이 자유학기제 운영조직은 연구부장을 협조하는 연구실무를 두고 진로상담부장과 1학년 담임교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5개 분과인 기획·운영분과, 진로교육분과, 수업·연수분과, 체험학습분과, 검증분석분과로 편성되었다. 수업·연수분과에서는 교수·학습모형의 개발과 적용 및 교과별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검증분석분과에서는 자유학기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19].

한편, A중학교에서는 2013년 자유학기제 1차년도를 담당했던 연구부장이 2014년에는 2학년 학년부장을 맡으면서 자유학기제의 지속성을 위한 조직 운영에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2차년도에는 2013년 자유학기제 운영조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부장과 1학년부장 및 연구실무 3명을 ‘하나의 팀’으로 신청받아 업무를 배정하였고, 1학년 담임배치까지도 안배하여 자유학기제 운영조직의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다.

4.2 학교 구성원

4.2.1 학생: 경쟁에서 협력으로

A중학교에서는 성적에만 매달려 경쟁 속에서 살았던 동일반의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서로를 배려해 주고 “하나의 별을 만들기 위해 어둠이 되어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관계”(1학년 한○○)로 변하고 있었다. 특히 학우들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성적을 중심한 동료관계가 학우들의 인성을 평가하는 인간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왕따 문화’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와 경험한 이후를 비교해보면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혼자 남다르게

공부하던 학생이 학우와 협동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 이제 더 이상 학우를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수행평가 할 때도 서로 도우려고 하고 “선생님, 조를 짜서 하고 싶어요 혼자서는 말고 친구랑 같이 하고 싶어요”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2학년부장)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중심의 발표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수업참여가 높아졌고,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없어졌다”(2학년 성○○)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참여 증가는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로 이어졌다.

국어수업의 경우, 블록타임제로 2시간 수업을 하면서 국어지문에 관련한 활동도 다양하게 해요. 발표하는 동안에 초등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줍음을 극복하게 되었고요 교과와 관련된 제주도 유적지를 직접 방문, 체험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 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 너무 행복해요. (1학년 양○○)

그러나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실행의 초기에 이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마치고 2학년에 진급하면서 중간, 기말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발생하였고, ‘1년간의 학업 공백’으로 학업에 대한 감이 떨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고입 전형이 실시되고 있기에 2학년을 헛되게 보낼 수 없다는 중압감과 불안감이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었다.

한편, 자유학기제에서는 학생중심의 수업으로 토론학습과 협동학습이 이루어졌으나 일반학기로 전환되면서 교사 위주의 ‘정상수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수업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이 상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학기제 수업방식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자유학기제는 토론하는 것이니까 선생님에게 대놓고 물어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자유학기제 하지 않으니까 선생님께 감히 뭐가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사실 질문하기도 두려운데……. 자유학기제 할 때는 선생님하고 친구처럼 의사소통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자기의견을 말하면 선생님한테 무언가 따지고 반말하는 것 같은 느낌. 지금은 그렇게 보여요 서로가 질문을 하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묻고 우리가 답하고 이런 방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2학년 김○○)

4.2.2 교사: 반대에서 긍정으로

국가 수준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거나 교육제도를 혁신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대부분 실패하였던 원인은 학교현장과 교사의 상황과 맥락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20]. A중학교에서 2013학년도 자유학기제 공모에 대한 교사들의 찬반 투표시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과 이해부족으로 반대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와 교사들이 토론과정을 거쳐 이루어 낸 합의는 자유학기제를 시행가능하게 한 초석이 되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실행하는 첫 해에는 교과담당 교사의 시수 감축에 대한 일부 교사의 저항이 있었으나, 수업방법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수업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사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 찬반 투표할 때 교사는 32명중에 31명이 반대하였습니다. 교장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학부모, 학생이 모두 찬성하니까 교사도 점차 해보겠다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종 투표에서 찬성은 31명, 반대는 1명이었는데, 반대했던 교사가 작년 자유학기제 업무를 담당한 연구부장입니다. 그런데 한 학기 자유학기제를 마무리할 때, 이 연구부장에게 180도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장)

‘작년까지만 해도 관계된 몇몇 교사끼리 1학년만 하면 되지. 그제 모든 선생님한테 자유학기제가 성립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제 어느 특정한 선생님의 몫이 아니라는 것, 모든 선생님이 같이 관심을 갖고 생각함으로써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부장)

그러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 전환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수업개선을 위한 전문성 개발, 교과수업과 진로체험 연계, 융복합 수업 수행 및 학생평가 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4.2.3 학부모: 걱정에서 ‘안심 반’ 으로

A중학교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자신들의 진로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감추

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학생들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학부모는 자유학기제의 운영을 지원하는 ‘전도사’가 되었고, “정말 이런 기회가 2학년에도 왔으면 좋겠다. 내 딸이 계속 1학년으로 남았으면 한다.”(1학년 학부모 임○○)고 희망하기도 했다. 학부모의 심리적 변화를 교사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문학반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부모님의 반응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요즘 들어 부모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쑥쑥 자라고 있대요. 예전에 없었던 꿈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 학생들의 놀이문화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1학년부장)

일부 학부모는 2013년도 자유학기제 1차년도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를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성적을 걱정했으나, 이러한 우려는 점차 안심으로 바뀌었다고 2학년 학부모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학년 올라와 중간고사 볼 때는 엄마들이 말이 많았어요. 아이들도 시험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자유학기제 내내 자녀들의 성적 때문에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기말고사 결과를 받아보고 ‘이렇게 해도 성적이 오르는구나.’라며 안도해 했어요. (2학년 학부모 장○○)

4.3 교육프로그램

4.3.1 공통과정의 수업 변화

A중학교의 학교장은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한 학교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수업의 변화를 꼽았다.

우리 학교는 원래 밝은 학교인데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은 더욱 밝아졌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은 수업의 변화입니다. 주로 교사가 주도하던 수업이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바뀌면서 열외였던 학생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 한두 명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약 2개월 정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니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만들어가며 참여했지요. (교장)

특히 A중학교는 ‘진로 탐색+예술·체육 중점모형’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기에 예술·체육과 국·영·수·사·과의 교과 간 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음악수업에서는 담당교사가 뮤지컬수업을 계획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국어수업과 융합해서 필요한 대본을 짭니다. 미술시간에는 의상, 무대 꾸미기 수업을 하고요. 뮤지컬 외부강사는 음악적 기교 몇 가지만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예술제 때, 공연하는 거예요. 미술시간과 체육시간 경우에도 이렇게 통합 또는 융합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장)

국어수업은 세 분의 선생님이 맡아서, 국어A는 글쓰기 위주로 하고, 국어B는 블록타임으로 체험위주로 하고, 국어C는 문법을 주로 하고 있어요. ... 저는 수학수업 때 앞에 나가서 칠판에 문제를 풀고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하니 애들 목소리도 커진 것 같고 발표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학년 이○○)

A중학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융합수업과 토론식 수업에 대하여 구성원의 94.4%가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21]. 나아가 A중학교는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교과에 대한 지식이 진로탐색으로 이어져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수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수업시간 전체가 아닌 일부 특정 시간에만 한정하여 새로운 교수방법을 도입하는 전략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A중학교는 2학년부장과 협의하여 자유학기를 경험하였던 2학년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 토론 수업 및 자기주도 학습’을 단절시키지 않는 수업 방식을 지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사실 2013년 자유학기제에 참여했던 교사 가운데 일부는 2학년 수업과 담임을 맡으면서 1차년도 자유학기제에서 활용했던 수업방식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흥미와 수업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었다.

4.3.2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변화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효과는 다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넓은 견문을 통해

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체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A중학교에서는 1학년의 진로체험을 전일제로 운영하면서 학급별, 학년별, 희망 학생별로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로체험을 ‘진로와 직업’시간의 진로탐색 활동과 연계하고, 학생들이 비전북을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유학기 동안에 자신들의 수요를 반영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끼를 펼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설 기회가 많아지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 직업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성숙과 확신을 키워가고 있었다.

진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고, 1학기 때는 애들이 원래 진로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어요. ‘꿈이 뭐야’하면 자기는 꿈이 없다고 했었어요. 이제는 꿈을 물어보면 친구들이 화가가 될 거라고 하고, 피아니스트 될 거라고 말을 해요. ... 제 짝꿍은 한의사가 꿈이에요.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기한테 맞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찾으니깐 좋은 것 같아요. (1학년 이○○)

현재 A중학교는 기관 중심의 소극적 방문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교과 수업과 연계한 장소를 물색하여 학생의 주도성과 리더십 및 성취감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최근 들어, 외부에서 진로체험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A중학교는 ‘교육적으로 과연 학생들이 체험을 할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를 먼저 고려하여 체험지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수업과 관련된 현장체험학습보다 진로체험을 더욱 선호”(2학년 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나 지역사회가 아무리 많은 여건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스스로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진로체험의 교육적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향(적극적 또는 소극적 등)에 따라 자발성을 촉진하며 진로체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A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교변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었다. 이에 분석틀을 구안하여 학교 운영 구조, 학교 구성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3가지 측면에서 학교변화를 분석하였다. 단지 2013년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는 A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교육성과를 현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분석틀의 3가지 측면에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운영 구조의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고 전체적인 학교조직의 차원에서도 일부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조직 측면의 변화는 학교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학교 전체의 구조적 변화라고 말하기 어려운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구조적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

이병환, 권민석(2015)의 연구에 따르면, A중학교와 같은 중소규모의 학교는 인적 물적인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진로탐색 중점 모형'이 권장되며, 주변의 학교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 구성을 모색해야 한다[1]. 특히 A중학교와 같이 '진로탐색+예술·체육 중점 혼합모형'을 선택할 경우, 교사 수급과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사들의 업무 분장조직을 규모에 맞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21].

둘째,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나타난 A중학교의 변화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은 학교 구성원 측면의 심리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비교적 높은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른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결과와 동일선상에 있다[26,22].

A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행 초기에 상존했던 교사의 저항과 반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용과 참여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교사들의 면담에서 언급되었듯이, 교사는 자유학기제의 정책적 지속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교사들의 학교변화에 대한 혁신 마인드를 약화시키고 있다. 한편,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학생들의 변화는 심리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면담을 통해 나타나듯이, 자유학기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거나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의 연계성을 희망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노는 학기'로 오해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유학기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 차원에서도 자유학기제 정책의 목적과 취지 및 운영 방식과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4] 학생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교육프로그램의 측면을 살펴볼 때 수업과 관련된 변화는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이 학생중심의 수업으로 변화하고, 강의식 교수방법이 토론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학습으로 바뀌었으며, 교과 간의 융합수업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었다[23,24]. 사실 이러한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중학교의 수업변화는 교육활동의 '본질적 변화'라기보다는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절충적인 부분 개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자유학기제가 교수-학습 운영의 변화를 통해 교육방법의 전반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평가부담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해야만 한다[25]. 특히 새로운 평가 실시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술식으로 작성 기입해야 하는 '업무적 부담'은 과정 중심의 평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정착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4].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한 학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학교 변화는 아직 '일시적, 부분적, 절충적' 특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자유학기제 운영 및 이를 통한 학교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사점과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를 통해 전반적인 학교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의 구조적 측면과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10]. 왜냐하면 구조적 측면의 변화가 반드시 교수-학습 변화와 교육성과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심리적 측면의 변화도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12,16].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상호작용과 공동작업으로 교직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학습공동체의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 정책의 초기에는 교수-학습 개선이나 진로체험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점차 이 2가지 중점사항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신철균, 박민정(2015)에 의하면, 자유학기제 정책의 변화는 학교구성원의 학교변화를 위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6].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정책이 추구하는 다양한 중점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자유학기제 실행 이전에 구성원들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무엇보다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 간의 연계방안이 학교변화의 실천적 전략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5].

셋째,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 자유학기제의 비전과 목적을 교사,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자유학기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기대와 신뢰를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변화의 주요 촉진요인인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업시수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평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김이경, 민수빈(2015)의 주장처럼[25], 교사의 직접적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교사 업무의 경감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의 A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변화의 사례를 분석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학교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마감한 이후의 시점에서 A중학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 지역의 학교변화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2015. Special thanks to Xueling for helping this work.

REFERENCES

- [1] B. H. Lee, & M. S. Kwon, An inquiry in to revitalization of free semester through case analysis of research school. *The Research of Educational Culture*, Vol. 21, No. 1, pp. 51-74, 2015.
- [2] S. Cho, & K. An, Educational policy plan balanced with excellence and equality based on humanis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1, pp. 733-745, 2013.
- [3] Ministry of Education, Operation plans for middle school free semester, 2013.
- [4] C. K. Shin, E. H. Hwang, & E. Y. Kim, An analytical study on the operation and actual state of the free-semester program,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6, No. 3, pp. 27-55, 2015.
- [5] S. D. Choi, et al., A study on overall extension plans of free semester, *KEDI*, 2015.
- [6] C. K. Shin, & M. J. Park, The case study of three schools with free-semester policy,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3, No. 1, pp. 309-338, 2015.
- [7] Y. Seo, & C. Joo, A Comparative study on successful school innovation cases in the United States,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Vol. 17, No. 3, pp. 191-215, 2007.
- [8] D. S. Jin et al., Exploring new factors of school change: Case study of J elementary D branch school which has overcome crisis of school closing,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31, No. 2, pp. 345-371, 2014.
- [9] K. Lee, & S. Chun, Why are there no changes in elementary A?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9, No. 3, pp. 223-247, 2011.
- [10] S. W. Park, A case study on the open autonomous school innov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7, No. 2, pp. 177-201, 2009.

[11] S. C. Purkey, & M. S. Smith, Effective schools: A review,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 83, No. 4, pp. 426-452, 1983.

[12] A. Hargreaves, & D. Shirley, The fourth way: The inspiring future for educational change, CA: SAGE Publications Inc., 2009.

[13] B. Park, School development and change, Hakgisa, 2006.

[14] J. Park, The impact of a principal leadership style of facilitating change on teacher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HRD Research, Vol. 6, No. 4, pp. 89-111, 2011.

[15] E. J. Hong, Providing a direction to interactive design educ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in IT environment: Focusing on college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4, pp. 265-276, 2014.

[16] D. D. Han et. al., School community of learning and caring, Hakgisa, 2012.

[17] M. Oh, "Minister Hwang came to Jeju and promised increasing the budget of free semester", Headline Jeju, 2014. 12. 8.

[18] A Middle School, School education and management plans, 2014.

[19] A Middle School, 2nd year plan for the free semester system, 2014.

[20] M. Fullan, & A. Hargreaves, What's worth fighting for in your school, NY: Teachers College Press, 2006.

[21] H. Jang, J. Lee, S. Yoon, & Y. Lee, Success factors and supporting strategies for the free semester system focusing on career explora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4.

[22] J. Kim, & S. Moon, Middle school teacher's perception on free learning semeste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 Education, Vol. 8, No. 1, pp. 12-24, 2015.

[23] S. Pi, Educational utilization of smart devices in the convergence education era,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3, No. 6, pp.

29-37, 2015.

[24] H. Heo, H. W. Lee, E. Kang, H. Kim, & K. Y. Lim, Localization of SMART education: Focused on Jeollanamdo,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5, pp. 25-37, 2014.

[25] E. G. Kim, & S. B. Min, Does the introduc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policy increase teachers' workload?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2, No. 2, pp. 181-203, 2015.

이 인 회(Lee, In Hoi)



· 2007년 5월 : University of Bridgeport, School of Education, USA(교육학박사)
 · 2010년 9월 ~ 2012년 2월 : 영동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전임강사
 · 2012년 2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부교수

· 관심분야 : 교육행정, 학교경영, 학교변화, 교육리더십, 교육 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교육협력
 · E-Mail : tomlee@jeju.ac.kr